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20卷(1), 2017. 4. pp. 27~56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류 지 은* · 정 진 철**

이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청소년 직업포부 수준 관련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공욕구, 가정소득,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대, 학교계열 등 9개 변인이 직업포부 수준과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학교급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효과크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의 효과크기는 과거 문헌에서 더 높게 보고되고 있었다. 넷째, 진로지도 현장에서 개입 가능한 후천적인 영향요인에는 학교계열,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성공욕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준과 영향요인들에 대한 실증 연구 확대 필요성, 청소년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검증의 필요성, 후기 청소년 및 발달단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에 맞는 진로지도 활동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청소년 직업포부 수준, 메타분석,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

투고일: 2016년 6월 23일, 심사일: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5일

* 제1저자,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fbrjqnr@gmail.com)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vince88@snu.ac.kr)

I. 서론

통계청의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2014년도 기준으로 공부(성적, 적성) 35.3%, 직업 25.6%, 외모·건강 16.9% 순이었다. 2012년도와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공부와 외모·건강에 대한 고민은 각각 0.6%, 0.9% 감소한 반면, 직업에 대한 고민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을 반영하는 결과로,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난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겪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청년기에 선행하는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추세이다.

청소년기의 직업포부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하나이다(최예슬·오현석, 2011). 직업포부란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으로(Gottfredson, 1981), 개인의 진로탐색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의 직업포부 수준은 미래의 실제 직업성취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Mau & Bikos, 2000; Rojewski, 2005; Schoon & Parsons, 2002; Sewell, Haller, & Ohlendorf, 1970). 이에 따라 직업포부의 발달 과정과 직업포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공윤정, 2011).

청소년기의 직업포부는 성별,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 변인 뿐 아니라 부모 학력과 직업, 가정 소득수준 등의 가정 변인, 교사-학생 관계, 학교 진로교육 등의 학교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경년, 2011; 김정숙, 2006; 박열매, 2011; 이종범·최동선·오창환, 2012; 최예슬·오현석, 2011). 그러나 청소년 직업포부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변인들 중 일부 변인에 한정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거나, 다양한 변인을 살펴본 경우에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김정숙(2006)은 직업포부 형성에 가정 특성보다 개인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반면,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2012)은 개인 간 직업포부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주로

가정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했다.

국내 청소년들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영향요인들의 효과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직업포부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직업포부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메타분석(meta-analysis)이다.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 방법(research synthesis)으로(황성동, 2015), 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들의 통합된 요약 추정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강현, 2015).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청소년 직업포부 영향요인에 관한 개별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 청소년들의 직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각 영향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청소년 직업포부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은 청소년들의 직업포부 발달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영향요인 중 개입이 가능한 후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진로지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직업포부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청소년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크기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직업포부의 개념과 이론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s)란 개인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욕망으로(Sewell, Haller, & Portes, 1969),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으로 정의되기도 한다(Gottfredson, 1981). 직업포부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목표나 선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흥미, 능력, 동기

등을 반영하고 있다(Rojewski, 2005).

직업포부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상적인 바람이 반영된 직업적 선호와 개인의 현실적인 조건 및 계획을 고려한 직업적 기대로 구분된다(이종범, 2005). 직업적 선호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개인의 능력과 자원 등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이상적 포부라면, 직업적 기대는 개인이 인지하는 외적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직업선택이나 진로계획 등 현실적 포부이다. 특정 시기의 개인에게 있어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는 합치할 수도, 혹은 상이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진로발달로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흥미, 능력, 가치관 등 개인의 내적 요인과 함께 사회의 계층구조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 외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고 직업포부를 결정한다.

직업포부와 관련된 주요 이론으로는 Gottfredson의 제한타협이론, Sewell의 지위획득이론, Vondracek의 진로발달 맥락적 이론 등을 살펴볼 수 있다(이종범·최동선·오창환, 2012; Lee & Rojewski, 2012).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에 대해 포부를 형성한다고 보고, 직업포부의 형성 과정을 제한(circumscription)과 타협(compromise)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자아개념이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방법들의 총체로, 자신의 성역할, 사회적 지위, 지적 능력, 흥미, 가치 등을 포함한다. 개인은 자아개념과 함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역할, 지위 수준, 일의 분야 등에 대해 스스로 형성한 직업이미지를 토대로 직업적 선호를 구성한다. 이후 개인은 직업의 접근 가능성을 인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의 범위인 진로대안영역을 설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직업포부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는 한 시점에 사회적 영역 안에서 개인이 선택한 하나의 직업적 대안으로써 하나의 직업명을 의미한다.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직업포부는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적합성과 접근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개념이다.

Sewell의 지위획득이론에서는 교육포부와 직업포부 간 관계와 함께 직업포부 발달에 있어 사회 계층의 역할을 강조한다. Sewell & Hauser(1975)는 가정배경 변인들이 부모, 교사 등 중요한 타인을 통해 직업포부와 기대 수준에 영향을 주며, 학생의 지적 능력은 직접적으로 직업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업성취도와 중요한 타인에 의해 매개되어 교육포부 및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지위획득이론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 심리적 특성들이 개인의 직업달성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종범·최동선·오창환, 2012).

Vondracek의 진로발달 맥락적 이론과 관련하여, Vondracek, Lerner, & Schulenberg(1986)는 발달이라는 개념이 성장과 학습 과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발달을 설명할 때 생애단계에서 제공되는 맥락변인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수준의 맥락과 개인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진로발달을 바라보는데, 이와 같은 접근법에 의하면 직업포부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직업포부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면, 개인의 직업포부는 개인 내적 요인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학교, 사회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개인은 두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2. 직업포부 수준의 측정

직업포부의 측정 방식은 크게 직업범주를 통한 측정과 직업지위를 통한 측정으로 구분된다. 직업범주는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유형이나 분야를 통해 구분하는 것을 가리키며, 직업지위는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사회에서 갖는 지위나 위세를 가리킨다(어윤경, 2011). 직업포부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직업지위를 통한 측정으로, 직업지위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접근과 직업위세에 대한 접근으로 구분된다(장홍근, 2008).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접근에서는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나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 수준을 통해 직업지위를 파악하며, 직업위세에 대한 접근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특정 직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 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통해 직업지위를 파악한다. 이때, 개인의 직업포부가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 개인의 직업포부 수준이 높다고 판별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학 및 사회학 연구에서는 직업포부 수준 측정 시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이종범·최동선·오창환, 2012). 사회경제적 지위를 활용하면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양적 증거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직업지위를 측정할 수 있어 직업지위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최예슬, 2011). 사회구

성원들에게 직접 직업지위를 측정하도록 할 경우, 직업위세나 명예의 측면이 아닌 다양한 속성의 이미지로 직업을 평가할 위험이 있어 객관적인 직업포부 수준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유홍준·김월화, 2002).

특정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 시 주로 활용되는 도구에는 Ganzeboom & Treiman(1996)의 ISEI, 홍두승(1983) 및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의 직업위계분류, 배혜련(2004)의 직업적 포부 측정도구, 유홍준·김월화(2006)의 직업지위점수, 이아라(2006)의 직업포부 측정도구, 황매향·박은혜·유성경(2006)의 직업포부 측정도구 등이 있다. Ganzeboom & Treiman(1996)의 직업지위척도(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는 16개 국가의 직업인 7만여 명의 소득 및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1988년도 국제표준직업분류 자료를 기준으로 직업군을 분류하고 있다. 홍두승(1983) 및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의 직업위계분류는 권력, 부, 위신, 교육 등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계급과 연결하여 직업부문에 따라 7개의 개별 계급집단으로 구분한다. 유홍준·김월화(2006)는 직업의 소득과 교육 수준으로 구성된 회귀방정식을 통해 직업별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였으며, 황매향·박은혜·유성경(2006)은 노동부 직업지도(Job Map)를 바탕으로 학력순위와 임금순위를 합산한 지위순위를 도출하여 직업포부 수준을 측정한다. 배혜련(2004)의 직업적 포부 측정도구는 60개의 직업목록에 대해 '매우 되고 싶다'부터 '결코 되고 싶지 않다'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아라(2006)의 직업포부 측정도구는 79개의 직업목록 중 응답자가 희망하는 직업 3가지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정도구들은 세부적인 직업지위 점수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기본적으로 소득과 교육을 통해 산출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전반적인 직업지위 점수의 추세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3.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

직업포부 관련 이론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직업포부는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청소년의 경우 주요한 외적 요인은 가정과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Dynes, Clarke, & Dinitz, 1956; Haller & Butterworth, 1960), 국내 연구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 변인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으로는 먼저 성별을 살펴볼 수 있다. 직업포부 수준과 성별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직업포부 수준에 있어 성별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울향, 1991; 박은혜, 2005; 신수영·김경근, 2012; 유홍준·김기현·신인철·오병돈, 2013; 최영준, 1990; Rojewski, 2005). 직업포부 수준의 성차는 생물학적 성차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젠더(gender)에 대한 인식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윤정(2011)과 이기순(2007)은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직업포부가 개인의 진로발달에 따라 변화하므로, 학년 역시 개인의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유정이·김지현·황매향(2004)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직업포부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박은혜(2005) 역시 학년이 직업포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성별이나 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개인의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 역시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박현옥과 강혜영(2011), 정지혜(2006)는 각각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아개념이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공윤정(2011), 박울향(1990), 신수영과 김경근(2012), 정현자(1997)는 초·중·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학업성취의 경우, 국내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물에서 청소년기의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졌다(공윤정, 2011; 김경년, 2011; 김진영·유백산, 2015; 신수영·김경근, 2012; 유백산·신수영, 2012; 유홍준·김기현·신인철·오병돈, 2013; 이성식·정철영, 2004; 정지혜, 2006; 정현자, 1997; 최영준, 1990).

나. 가정 변인

가정 변인 중 선행연구에서 직업포부 수준과 관련하여 주된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가정의 소득수준 및 지위수준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포부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왔다(김진영·유백산, 2015; 박울향, 1990; 신수영·김경근, 2012;

이성식·정철영, 2004).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반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어 직업포부 역시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종범·최동선·오창환, 201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관계, 부모 기대 역시 자녀의 직업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현옥과 강혜영(2011)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의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박울향(1990)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직업포부 수준이 높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부모 기대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직업포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진영·유백산, 2015; 신수영·김경근, 2012; 유백산·신수영, 2012; 이성식·정철영, 2004; 최영준, 1990).

다. 학교 변인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학교 변인으로는 학생-교사관계와 학교계열이 있다. 박울향(1990)과 유백산·신수영(2012)은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학생-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학교계열의 경우,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높다는 연구(김경년, 2011; 유홍준·김기현·신인철·오병돈, 2013)들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Ⅲ. 연구방법

1. 문헌검색

국내 청소년 직업포부 영향요인과 관련된 문헌 중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사회과학 분

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인 국회전자도서관(dl.nanet.go.kr), DBpia(www.dbpia.c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를 통해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관련 주제어 등에 해당하는 모든 문헌을 검색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함에 있어 주요 키워드는 ‘직업포부’, ‘청소년 직업포부’, ‘초등학생 직업포부’, ‘중학생 직업포부’, ‘고등학생 직업포부’였으며, 이를 통해 학술지 게재 논문 190편, 학위논문 317편 등 총 507편이 검색되었다.

2. 문헌선정

문헌선정 기준은 첫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둘째, 직업포부의 관련요인 또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경우, 셋째, 직업포부에 대해 수준을 측정된 경우였다. 이때, 직업포부의 수준을 사회경제적 지위로 측정하지 않은 연구, 통계량을 보고하지 않은 연구, 고찰 연구, 질적 연구 등은 제외하였다.

문헌선정을 위해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문헌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후 중복된 문헌들을 제거하였다. 이후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자료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제목이나 초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문을 참조하여 해당 문헌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본문을 검토하여 이 연구에 포함할 문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으며, 분석 가능할 것으로 선정된 연구는 총 19편이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문헌선정 절차

| 단계 | 선정된 문헌 수(편) |
|----------------------|-------------|
| 1.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문헌 검색 | 507 |
| 2. 중복된 문헌 제외 | 272 |
| 3. 자료선정 기준에의 부합성 검토 | 28 |
| 4. 본문 검토 및 최종 문헌 선정 | 19 |

3. 문헌 질 평가

이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된 문헌들은 3편을 제외하고 모두 상관관계 연구들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Wong & Cummings(2007), 정은영(2013) 등에서 사용된 질 평가 도구인 'Quality Assessment and Validity Tool for Correlational studies'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문헌에 대한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표 1〉 참조).

<표 1> 상관연구의 질 평가 및 타당성 분석 도구

| 연구물: | 제1저자: | 출판 일자: | 저널명: | | |
|---|--------|---------|------|-----|---|
| 연구 설계 | | | | 아니오 | 예 |
| 1. 전향적 연구인가? | | | | 0 | 1 |
| 표본 | | | | 아니오 | 예 |
| 1. 확률 표집이 사용되었는가? | | | | 0 | 1 |
| 2. 표본크기가 타당한가? | | | | 0 | 1 |
| 3.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표집 되었는가? | | | | 0 | 1 |
| 4. 익명성이 보장되었는가? | | | | 0 | 1 |
| 5. 응답률이 60% 이상인가? | | | | 0 | 1 |
| 측정 | | | | 아니오 | 예 |
| 독립변인 | | | | | |
| 1. 신뢰롭게 산출되었는가? | | | | 0 | 1 |
| 2. 타당한 도구를 통해 산출되었는가? | | | | 0 | 1 |
| 종속변인 | | | | | |
| 1.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70 이상인가? | | | | 0 | 1 |
| 2. 이론적 체계가 사용되었는가? | | | | 0 | 1 |
| 통계 분석 | | | | 아니오 | 예 |
| 1. 다수의 산출값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가? | | | | 0 | 1 |
| 2. 이상값을 처리하였는가? | | | | 0 | 1 |
| 연구 타당성 점수 | | | | 계 | |
| 낮음 0~4 | 보통 5~8 | 높음 9~12 | | | |
| 최종 결정: 연구물 포함/불포함 | | | | | |

주) 정은영(2013)에서 제시된 도구를 연구자가 재구성 및 변안함.

사용된 질 평가 도구는 연구 디자인 문항 1개, 표본추출 문항 5개, 측정에 관한 문항 4개, 통계분석에 관한 문항 2개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예'일 경우 1점, '아니오'일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이때 총점이 9점 이상인 경우 문헌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4점 이하일 경우 문헌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관관계 연구인 16편에 대해 연구자 2인이 질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간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중간 정도의 문헌은 10편으로 6점이 1편, 7점이 5편, 8점이 3편이었고, 질적 수준이 높은 문헌은 7편으로 9점이 4편, 10점이 3편이었다. 이들 연구물은 대부분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확률 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응답률이 60% 이상이었고, 사용된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70 이상이었으며, 이상값을 처리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메타 분석 대상 연구물로 선정된 문헌들은 모두 질에 있어 수용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4. 문헌분석

문헌의 질 평가 후 19개 연구물에 대해 데이터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질성 검정을 위한 Q 검정과 개별 연구물의 효과크기를 병합한 평균 효과크기 산출을 실시하였다. 이때 효과크기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주로 상관관계로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병합하였으므로 평균 효과크기를 평균 가중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메타분석 시에는 연구의 결과가 모든 연구의 결과를 대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출판 편차(publication bias)에 대한 검정이 시행되어야 한다(황성동, 2015). 출판편차에 대한 판정의 경우, 각 연구에서 측정된 처리효과(X축)와 해당 연구의 정밀성을 나타내는 척도(표본 수 혹은 표준오차, Y축)를 통해 산점도(funnel plot)와 Egger의 회귀분석(Egger's regression test)를 검토하여 수행되었다. 출판편차 검정 시 먼저 산점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산점도가 비대칭의 모습을 보이면 데이터가 출판편차를 보인다고 판정하고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gger의 회귀분석은 산점도의 비대칭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회귀식 초기 값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초기 값이 우연히 생긴 결과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보고 오류가 있다고 판정한다(Egger, Davey Smith, Schneider, & Minder, 1997).

메타분석에 있어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있다. 평균 효과 크기 산출 방식 선택 시 동질성 검정을 위한 Q 검정이 시행되는데, Q 검정은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변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질하다는 귀무가설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Q 검정 결과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클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을 경우에는 개별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 사이의 변동과 각 연구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재설정하는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한다(신우중, 2015).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Q 검정 결과에 따라 모형을 선택하여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고찰된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설계의 경우 상관관계 연구가 16편(84.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차이분석 연구가 3편(15.8%)이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3편(15.8%),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5편(26.3%), 초·중·고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각 3편(15.8%)이었으며, 평균 대상자 수는 1,480명이었다.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등 세 가지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개인변인으로는 성별(5편, 26.3%), 지역(2편, 10.5%), 학년(2편, 10.5%), 학업성취(13편, 68.4%), 자아개념(2편, 10.5%), 자기효능감(4편, 21.1%), 과제난이도(1편, 5.3%), 자습시간(1편, 5.3%), 독서활동(1편, 5.3%), 창의적 인성(1편, 5.3%), 성역할 정체감(2편, 10.5%), 성공욕구(3편, 15.8%), 진로 인식(1편, 5.3%), 과거 직업포부(1편, 5.3%), 교육포부(2편, 10.5%)가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변인으로는 가정소득(6편, 31.6%), 부모학력(3편, 15.8%), 부모직업(6편, 31.6%), 부모기대(5편, 26.3%), 부모양육태도(1편, 5.3%), 부모관계(1편, 5.3%), 부모학업관여(1편, 5.3%)가 연구되었으며, 학교변인으로는 학교소재지(1편,

5.3%), 학교계열(3편, 15.8%), 학생-교사관계(2편, 10.5%), 학교진로진학환경(1편, 5.3%)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

| 연구자 | 연구 설계 | 표본 크기 | 연구대상 | 직업포부 영향요인 |
|--------------------------|-------|-------|----------|--|
| 박울향(1991) | 상관 | 982 | 중학생 | ①가정소득, ②부모직업, ③지역, ④성별, ⑤자기효능감, ⑥학업성취, ⑦성공욕구, ⑧학생-교사관계 |
| 박현옥, 강혜영(2011) | 상관 | 389 | 초등학생 | ①자아개념, ②부모양육태도 |
| 박열매(2011) | 상관 | 241 | 초등학생 | ①학업성취 |
| 조봉환, 박미진(2012) | 상관 | 322 | 초등학생 | ①창의적 인식, ②진로인식 |
| 유홍준, 김기현, 신인철, 오병돈(2013) | 상관 | 2,516 | 고등학생 | ①성별, ②지역, ③학업성취, ④부모학력, ⑤부모직업, ⑥학교계열 |
| 공윤정(2011) | 상관 | 461 | 초·중·고등학생 | ①학업성취, ②과제난이도 선호, ③자기효능감, ④성역할 정체감 |
| 이기순(2007) | 상관 | 712 | 중학생 | ①성역할 정체감, ②성공욕구 |
| 정현자(1997) | 상관 | 471 | 초·중·고등학생 | ①학업성취, ②학교소재지, ③자기효능감, ④부모학력, ⑤부모직업, ⑥가정소득 |
| 정지혜(2006) | 상관 | 421 | 중학생 | ①학업성취, ②자아개념 |
| 임은미, 김현미(2013) | 상관 | 1,894 | 중·고등학생 | ①과거 직업포부, ②부모학업관여 |
| 김진영, 유백산(2015) | 상관 | 859 | 고등학생 | ①부모직업, ②부모학력, ③가정소득, ④부모기대, ⑤학업성취 |
| 김경년(2011) | 상관 | 6,085 | 중·고등학생 | ①학업성취, ②학교계열 |
| 신수영, 김경근(2012) | 상관 | 5,499 | 중학생 | ①가정소득, ②성별, ③학업성취, ④자습시간, ⑤교육포부, ⑥자기효능감, ⑦독서활동, ⑧부모기대 |
| 유백산, 신수영(2012) | 상관 | 2,022 | 고등학생 | ①부모기대, ②학생-교사관계, ③학교진로진학환경, ④학업성취 |
| 이성식, 정철영(2004) | 상관 | 700 | 고등학생 | ①학업성취, ②성공욕구, ③가정소득, ④부모기대 |
| 최영준(1990) | 상관 | 814 | 고등학생 | ①성별, ②가정소득, ③부모직업, ④학업성취, ⑤학교계열, ⑥부모기대, ⑦교육포부 |
| 박은혜(2005) | 차이 | 2,692 | 초·중·고등학생 | ①성별, ②학년, ③학업성취 |
| 하경화(2002) | 차이 | 670 | 중학생 | ①부모직업 |
|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2004) | 차이 | 375 | 중·고등학생 | ①학년 |

메타분석의 결과가 왜곡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출판편차 검정은 연구 수가 3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므로(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이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 수가 3편 이상인 성별,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공욕구, 가정소득,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대, 학교계열에 대해 출판 편차 검정과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출판편차 검정 및 메타분석

가. 출판편차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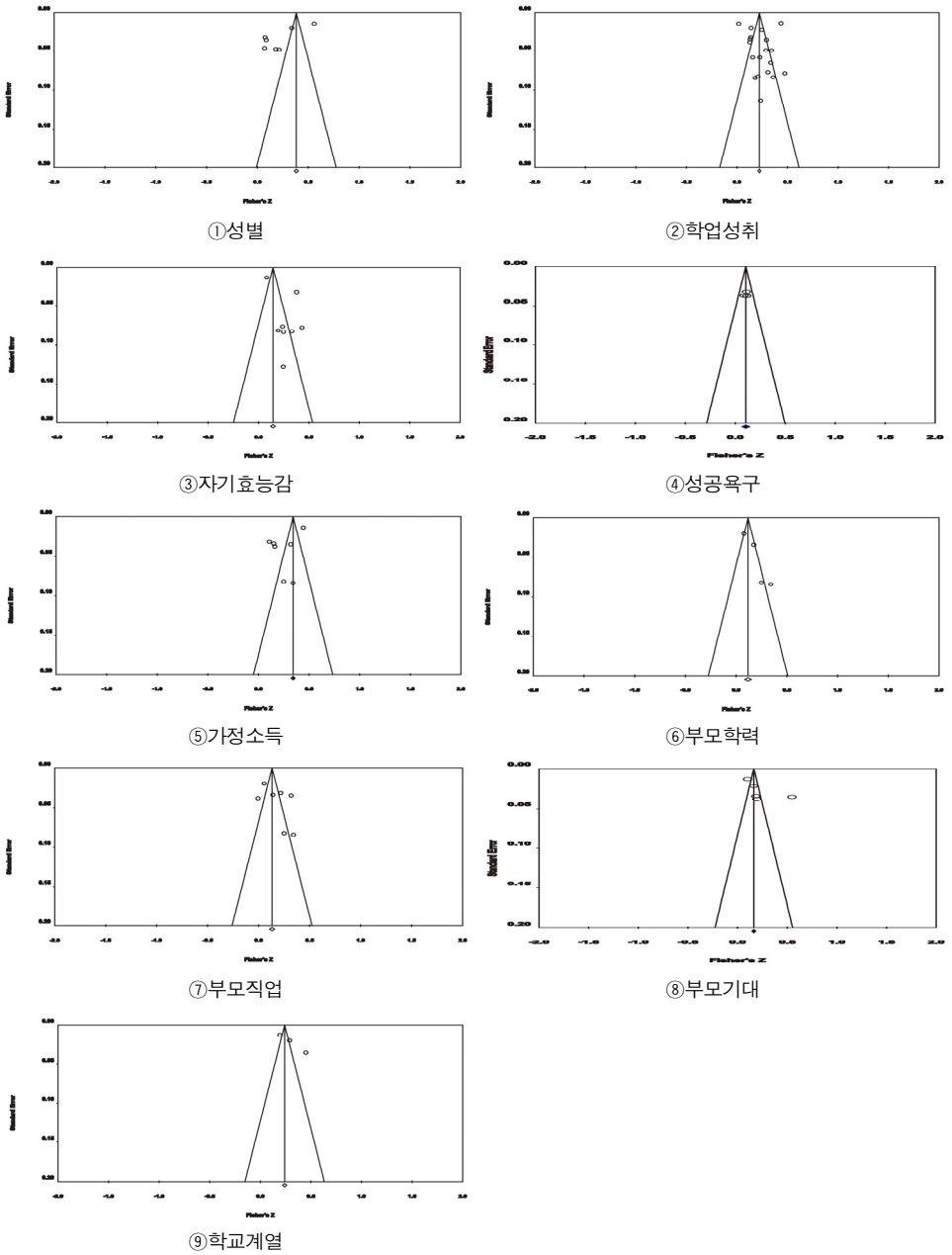
청소년 직업포부 영향요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은 산점도와 Egger의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공욕구, 가정소득,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대, 학교계열에 대한 출판편차를 검정한 후 시행하였다. 출판편차 검정 후 메타분석 단계에서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출판편차 검정 시 여러 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에 대해서는 변인별 효과크기를 학교급에 따라 구분한 후 검토하였다.

먼저 산점도 상 삼각형이 대칭을 이루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공욕구만이 대칭을 이루며 나머지 변인들은 비대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비대칭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위해 Egger의 회귀분석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성별, 자기효능감, 부모학력, 학교계열에 출판편차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조).

산점도와 Egger의 회귀분석을 통해 출판편차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자기효능감, 부모학력, 학교계열을 대상으로 Trim and fill 방법을 사용하여 재분석을 시도하였다. Trim and fill 방법은 효과크기 분포에서 비대칭인 값을 제외하여 남은 값으로 새로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새로운 평균을 중심으로 제외한 연구를 복원시켜 놓고 대칭이 되도록 누락된 연구를 채워 나가는 교정 방법이다. 교정 후 산출된 효과크기가 교정 전과 비교하여 10% 이상의 변화율을 보이는 경우 출판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Maneeton, Maneeton, & Louthrenoo, 2010).

Trim and fill 방법을 통해 재분석한 결과, 성별, 부모학력, 학교계열은 교정 전-후 10% 이상의 변화율을 보여 출판편차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교정 전-후 동일한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보여 출판편차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성별과 부모학력, 학교계열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2] 산점도를 통한 출판편향 검정 결과



<표 3> 청소년 직업포부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 변인 | k | n | 동질성 검정 | | 모형 | 평균 가중 상관계수 | 유의성 검정 | | Meta-ANOVA | | Egger's regression p | Trim and fill | | |
|----|--------|--------|--------|---------|-------|------------|--------|-------|------------|-------|----------------------|---------------|-----|-------|
| | | | Q | p | | | Z | p | Q | p | | k' | 교정값 | |
| 개인 | 성별 | 5(7) | 11,166 | 416.880 | 0.000 | Random | 0.219 | 2.479 | 0.013 | 0.253 | 0.881 | 0.004 | 1 | 0.244 |
| | 학업 성취 | 13(19) | 21,996 | 577.657 | 0.000 | Random | 0.241 | 5.707 | 0.000 | 4.643 | 0.098 | 0.435 | - | - |
| | 자기 효능감 | 4(8) | 7,332 | 98.115 | 0.000 | Random | 0.266 | 3.975 | 0.000 | 0.771 | 0.680 | 0.042 | 0 | 0.266 |
| | 성공 욕구 | 3(3) | 2,394 | 0.305 | 0.858 | Fixed | 0.105 | 5.144 | 0.000 | 0.102 | 0.749 | 0.390 | - | - |
| 가정 | 가정 소득 | 6(7) | 9,151 | 166.231 | 0.000 | Random | 0.252 | 3.746 | 0.000 | 0.329 | 0.566 | 0.052 | - | - |
| | 부모 학력 | 3(4) | 3,672 | 16.440 | 0.001 | Random | 0.186 | 3.582 | 0.000 | 2.708 | 0.100 | 0.031 | 2 | 0.122 |
| | 부모 직업 | 6(7) | 6,138 | 71.929 | 0.000 | Random | 0.178 | 3.643 | 0.000 | 0.014 | 0.906 | 0.120 | - | - |
| | 부모 기대 | 5(5) | 9,894 | 141.938 | 0.000 | Random | 0.235 | 3.463 | 0.001 | 0.769 | 0.380 | 0.094 | - | - |
| 학교 | 학교 계열 | 3(3) | 9,415 | 55.599 | 0.000 | Random | 0.306 | 4.864 | 0.000 | - | - | 0.024 | 0 | 0.499 |

주1) k=연구 수. 괄호 안의 값은 학교급별로 효과크기를 구분했을 때의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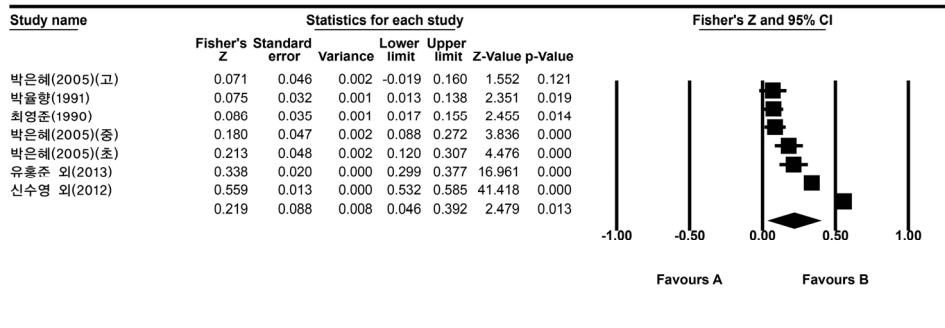
주2) n=총 표본크기.

주3) k'=Trim and fill 방법에서의 투입 연구 수

나. 개인 변인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

개인 변인 중 성별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5편으로 11,16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아(Q=416.880, $p < 0.05$) 무선 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성별과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219($p < 0.05$)로 성별은 직업포부 수준과 중간 정도 상관을 갖고 있었고,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 확인을 위해 Meta-ANOVA를 실시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Q=0.253, $p = 0.881$). 성별은 출판편차의 위험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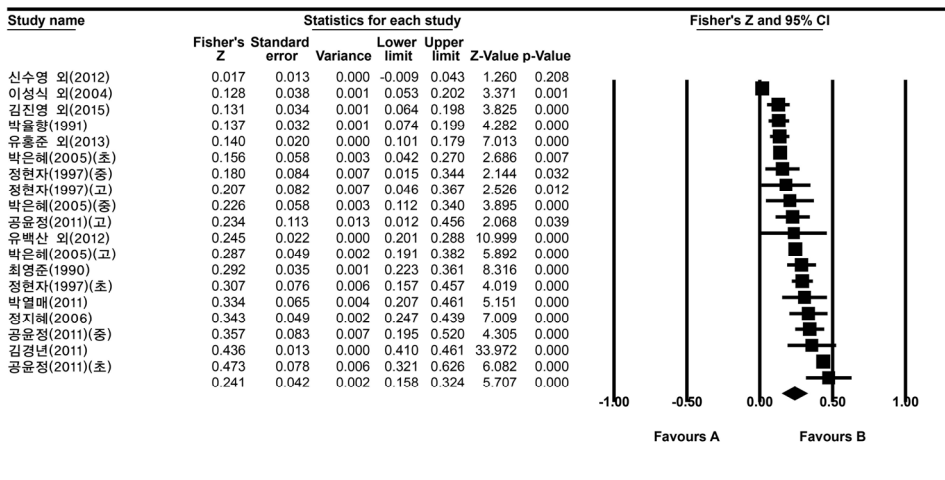
[그림 3] 성별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성별

학업성취와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13편으로 21,99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577.657$,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학업성취와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241($p<0.05$)로 학업성취는 직업포부 수준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4.643$, $p=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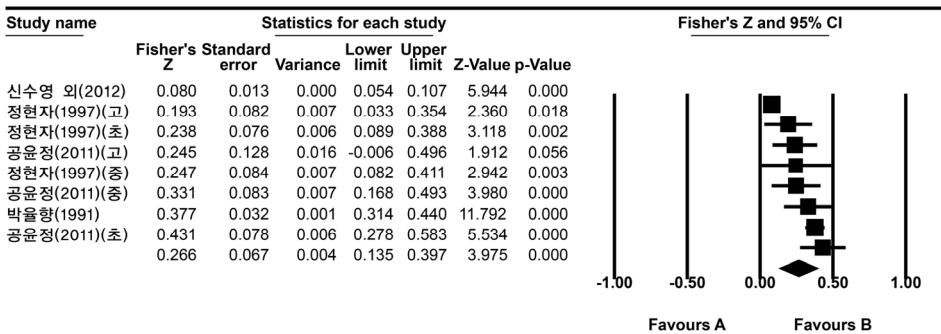
[그림 4] 학업성취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학업성취

자기효능감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4편으로 7,3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98.115$, $p<0.05$) 무선흐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266(p<0.05)$ 으로 자기효능감은 직업포부 수준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0.771$, $p=0.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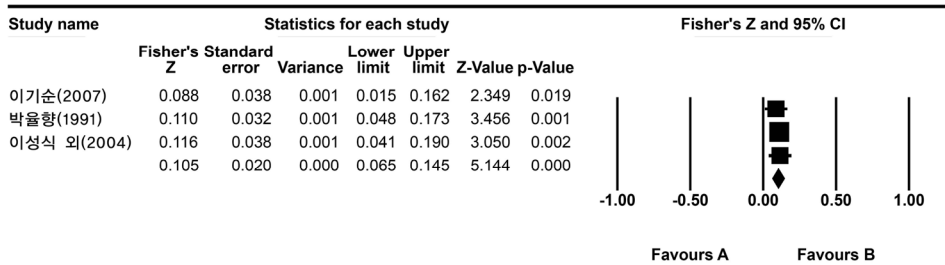
[그림 5] 자기효능감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자기효능감

성공욕구와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3편으로 2,39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한 것으로 나타나($Q=0.305$, $p=0.858$) 고정 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성공욕구와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105(p<0.05)$ 로 성공욕구는 직업포부 수준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0.102$, $p=0.749$).

[그림 6] 성공욕구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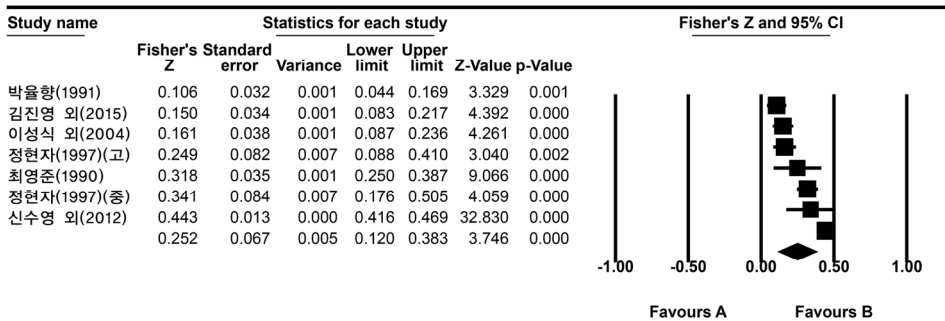


성공욕구

다. 가정 변인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

가정 변인 중 가정소득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6편으로 9,15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Q=166.231,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가정소득과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252(p<0.05)$ 로 가정소득은 직업포부 수준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0.329, p=0.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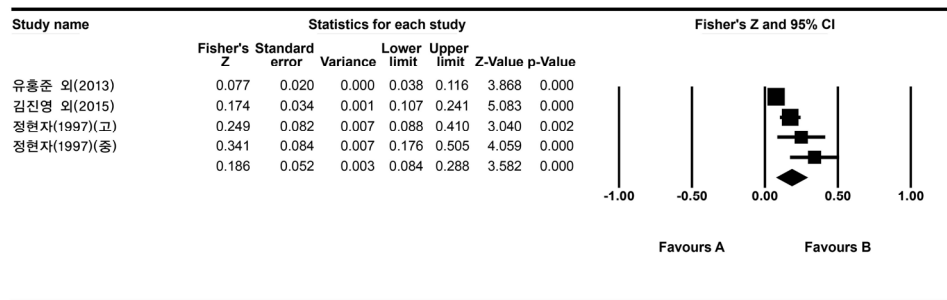
[그림 7] 가정소득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가정소득

부모학력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3편으로 3,67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16.440$,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모학력과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186 ($p<0.05$)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과 직업포부 수준의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Q=2.708$, $p=0.100$). 부모학력은 출판편차의 위험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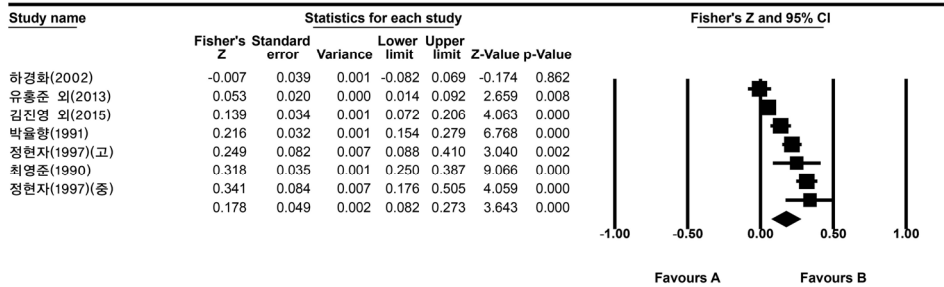
[그림 8] 부모학력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부모학력

부모직업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총 6편으로 6,13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719.29$,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모직업과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178 ($p<0.05$)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Meta-ANOVA 실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Q=0.014$, $p=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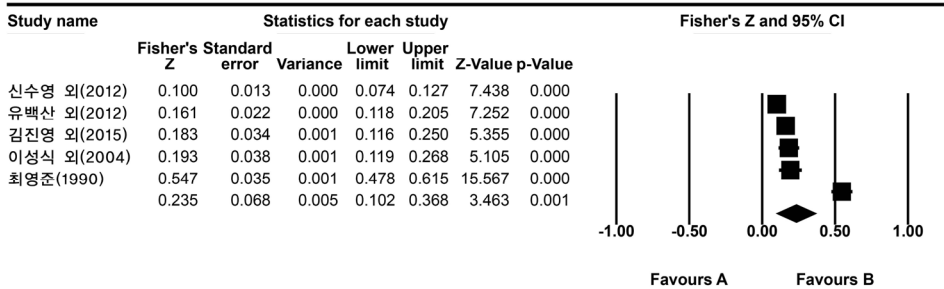
[그림 9] 부모직업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부모직업

부모기대와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총 5편으로 9,89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141.938$, $p<0.05$) 무선희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모기대와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235($p<0.05$)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ta-ANOVA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Q=0.769$, $p=0.380$).

[그림 10] 부모기대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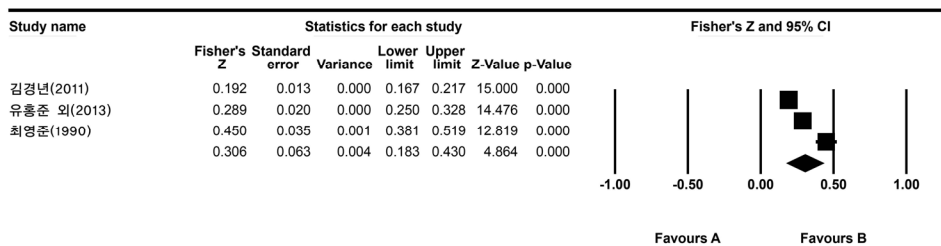
부모기대

라. 학교 변인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

학교 변인 중에서는 학교계열만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학교계열이란 고등학교의 계열로 인문계와 직업계를 의미한다. 학교계열과 직업포부 수준 간 관련성을 분

석한 연구는 총 3편으로 9,4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질성 검정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Q=55.599, p<(0.05)$)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학교계열과 직업포부 수준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는 $0.306(p<(0.05))$ 으로 학교계열은 직업포부 수준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은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Meta-ANOVA는 실시하지 않았다. 학교계열의 경우 출판편차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11] 학교계열의 메타분석 결과(forrest plot)



학교계열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과 청소년 직업포부 사이의 종합된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19편의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성공욕구, 가정소득,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대, 학교계열 등 9개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해 통합된 상관계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계열($r=0.306$), 자기효능감($r=0.266$), 가정소득($r=0.252$), 학업성취($r=0.241$), 부모기대($r=0.235$), 성별($r=0.219$), 부모학력($r=0.186$), 부모직업($r=0.178$), 성공욕구($r=0.105$) 모두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보다는 일반고 학생이 직업포부 수준이 높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 가정의 가정소득, 개인의 학업성취,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력수준과 직업의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공욕구가 클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포부 관련 이론 중 Sewell의 지위획득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직업포부 수준 관련 변인들에서 연구대상의 학교급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효과크기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메타분석에서의 조절효과 분석은 효과크기의 차이 및 이질성에 대한 원인, 배경 등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이 학교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보다는 효과크기의 차이가 학교급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기대 등 가정변인의 효과크기는 최근 문헌보다 1990년대 문헌에서 더 높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최근 들어 진로 및 직업정보가 과거보다 다양해졌고, 정보화의 영향으로 진로 및 직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진로 역할모델로서 부모가 갖는 비중이 컸으므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부모가 갖는 기대가 자녀의 직업포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진로 역할모델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진로지도 현장에서 개입이 가능한 후천적인 영향요인으로는 학교계열과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성공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직업포부 수준이 미래의 실제 직업성취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 현장에서는 진학지도를 통한 적절한 학교계열의 선택, 학습지도를 통한 학업성취 향상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진로활동을 통한 자기효능감과 성공욕구 함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및 한계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으나, 19편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논문이 활용되었고, 연구 사례수가 3개 미만인 일부 변인들이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타당한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선정 기준에 의한 것으로, 국내 청소년들의 직업포부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이 직업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된 효과 크기만을 산출하였으므로,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기효능감이 직업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등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직업포부 수준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포괄적인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기 청소년 및 발달단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직 전 단계에 있는 후기 청소년들의 직업포부 수준이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초·중·고등학생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후기 청소년의 특징적인 진로발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접근을 통해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직업포부 수준과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나가는지를 보다 실증적으로 구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가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지도 활동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적 중심의 고등학교 진학 지도가 지양되어야 한다. 학생의 중학교 성적에 따라 진학할 고등학교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진학할 학교를 결정한 후 필요한 학습지도가 병행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등의 진로활동에 있어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상담 및 검사에 있어 학생의 직업포부 수준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환경적 특성에 맞춰 직업포부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적절한 직업포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처치가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및 탈북 학생이나 장애 학생 등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낮은 직업포부 수준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수 학생 대상의 진로교육 정책에 있어 진로 역할모델 사례 제공, 학습지원,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 직업포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2015). 「메타분석에서 통계학적 고려사항들」, 『한양메디컬리뷰』, 제35권, 23~32쪽,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공윤정(2011). 「청소년의 성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역할과 직업포부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19권 제1호, 127~141쪽,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경년(2011). 「고교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적 선발이 학생들의 직업포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제49권 제4호, 121~145쪽, 한국교육학회.
- 김정숙(2006). 「중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교육문제연구』, 제26권, 125~148쪽,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진영·유백산(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매개 과정과 상호작용효과」, 『교육사회학연구』, 제25권 제2호, 23~46쪽, 한국교육사회학회.
- 박열매(2011).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력과 직업포부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제10권 제1호, 95~108쪽,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 박윤희(1991). 「중학생들의 직업 포부와 획득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2005).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옥·강혜영(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137~153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배혜련(2004).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과 직업적 포부」,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수영·김경근(2012). 「가정배경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가족 내 사회자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제18권 제1호, 121~141쪽, 안암교육학회.
- 신우중(2015).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의 개요」, 『한양메디컬리뷰』, 제35권, 9~17쪽,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어윤경(2011).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포부 변화 추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직업가치 효과

- 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4호, 21~39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유백산·신수영(2012). 『가정배경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학생-교사 관계 및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 51~77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정이·김지현·황매향(2004). 『중고등학생의 직업포부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42권 제2호, 315~333쪽, 한국교육학회.
- 유홍준·김기현·신인철·오병돈(2013). 『청소년의 직업포부와 희망직업: 대학전공 선택과의 관련성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6호, 91~110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유홍준·김월화(2002). 『한국사회의 직업지위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5권 제2호, 35~65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제40권 제6호, 153~186쪽, 한국사회학회.
- 이기순(2007). 『중학생의 직업포부: 성역할과 직업지위 지각의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정철영(2004). 『Gottfredson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대안영역과 직업포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6권 제3호, 43~58쪽,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이아라(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 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범·최동선·오창환(2012).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4권 제4호, 25~43쪽,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_____ (2005). 『초등학생의 직업흥미와 직업포부 및 진로발달간의 관계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제3호, 135~152쪽,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임은미·김현미(2013). 『부모학업관여와 청소년 직업포부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83~102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장홍근(2008). 『해외연구동향: 직업위세 연구동향-직업위세 연구의 패러다임과 균열-』, 『국제노동브리프』, 119~124쪽, 한국노동연구원.
- 정은영(2013). 『임상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간호행정학회지』, 제19권 제5호, 599~512쪽, 한국간호과학회 간호행정학회.
- 정지혜(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자(1997). 『여학생의 학구적 자아개념과 직업관 및 직업포부수준간의 관계』, 한국교

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봉환·박미진(2012). 「초등학생의 창의적 인성과 진로인식 및 직업포부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제11권 제3호, 447~463쪽,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 최영준(1990). 「농촌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인과관계 모형 (Causal Model)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9권 제1호, 115~130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최예슬·오현석(2011). 「중학생 직업포부의 변화추이,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3호, 237~265쪽, 한국교육학회.
- _____ (2011). 「중학생 직업포부의 변화추이,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5). 「2015 청소년 통계」, 통계청.
- 하경화(2002). 「어머니의 노동시장경력이 딸의 직업포부 및 획득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제3호, 69~87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황매향·박은혜·유성경(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제7권 제4호, 1137~1152쪽, 한국상담학회.
- 황성동(2015).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학지사.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 Rothstein, H. R.(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Chichester: UK: Wiley.
- Dynes, R. R., Clarke, A. C. & Dinitz, S.(1956). "Levels of occupational aspiration: some aspects of family experience as a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1 No.2, pp. 212~215.
- Egger, M., Davey Smith, G., Schneider, M. & Minder, C.(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simple, graphic test", *BMJ*, Vol.315, pp. 629~634.
- Ganzeboom, H. B. G. & Treiman, D. J.(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Vol.25, pp. 201~239.
-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pp. 545~

580.

- Haller, A. O. & Butterworth, C. E.(1960). "Peer influences on levels of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aspiration", *Social Forces*, Vol.38 No.4, pp. 289~295.
- Jones & Urasawa(2012). "Sustaining Korea's Convergence to the Highest-Income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No. 965.
- Lee, I. H. & Rojewski, J. W.(2012). "Development of occupational aspirations in early Korean adolescents: A multiple-group latent curve mode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Vol.12 No.3, pp. 189~210.
- Maneeton, B., Maneeton, N. & Louthrenoo, W.(2010). "Cognitive deficit in patients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sian Pacific Journal of Allergy and Immunology*, Vol.28 No.1, pp. 77~83.
- Mau, W. & Bikos, L.(2000). "Educational and vocational aspirations of minority and femal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78, pp. 186~194.
- Rojewski, J. W.(2005). "Occupational aspirations: Constructs, meanings, and application", In S. D. Brown, and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131~15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choon, I. & Parsons, S.(2002). "Teenage aspirations for future careers and occupational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60, pp. 262~288.
- Sewell, W. H., Haller, A. O. & Ohlendorf, G. W.(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5 No.6, pp. 1014~1027.
- Sewell, W. H., Haller, A. O. & Portes, A.(1969). "The education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4 No.1, pp. 82~92.
- Sewell, W. H. & Hauser, R. M.(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New York: Academic Press.
- Vondracek, F. W., Lerner, R. M. & Schulenberg, J. E.(1986). *Career development: A life-span developmental approach*, Hillsdale, NJ: Erlbaum.

- Wong, C. A. & Cummings, G. G.(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leadership and patient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15, pp. 508~521.

Abstract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Ji-eun Ryu
Jinchul Jeong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on the 19 studies about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extracted variables had a medium effect on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Second, school levels had no moderate effect on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Third, the effect of family variables was higher in studies of the 1990s. Fourth, school type,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desire for success were the variables that could be impacted through career guidanc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pirical studies on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and related variables should be conducted. Second, studie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and related variables should be implemented. Third, an integrated approach to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and related variables of post adolescents should be implemented. Fourth,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should to be reflected in career education policies.

Key words: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meta-analysis, variables related to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